

2nd medical service design project

CPR 확산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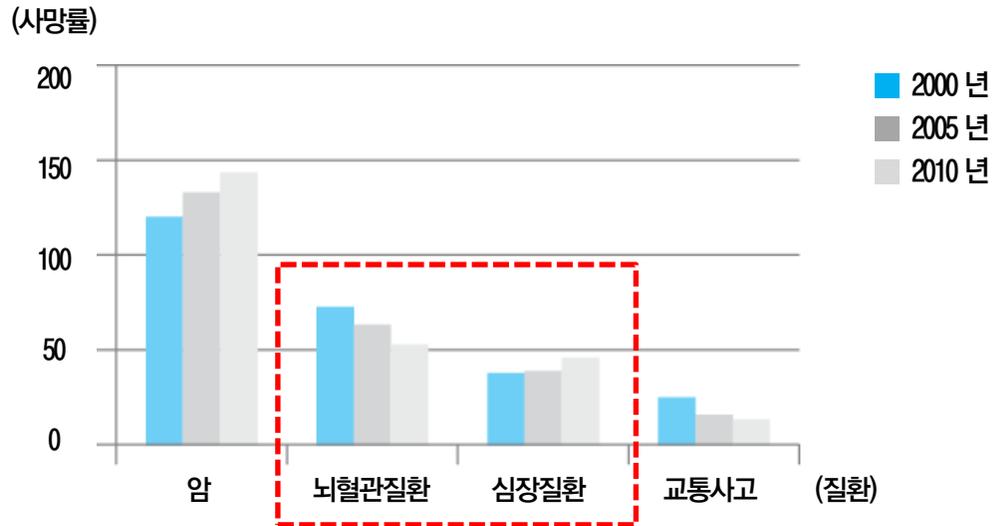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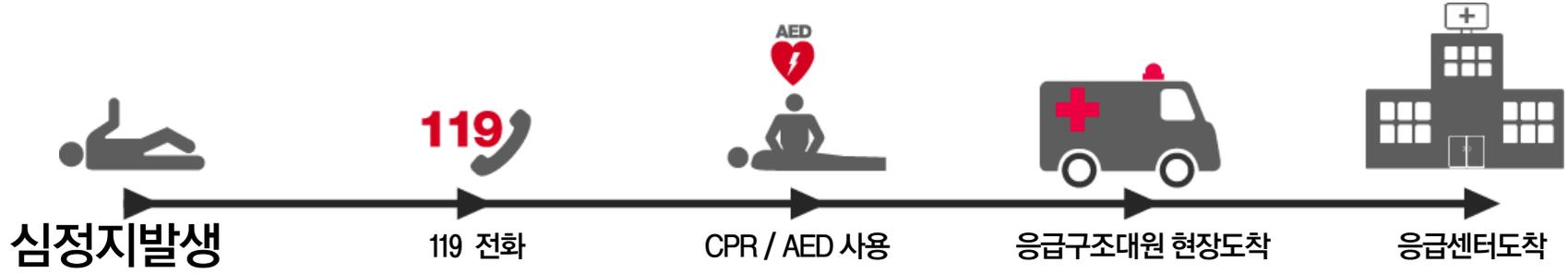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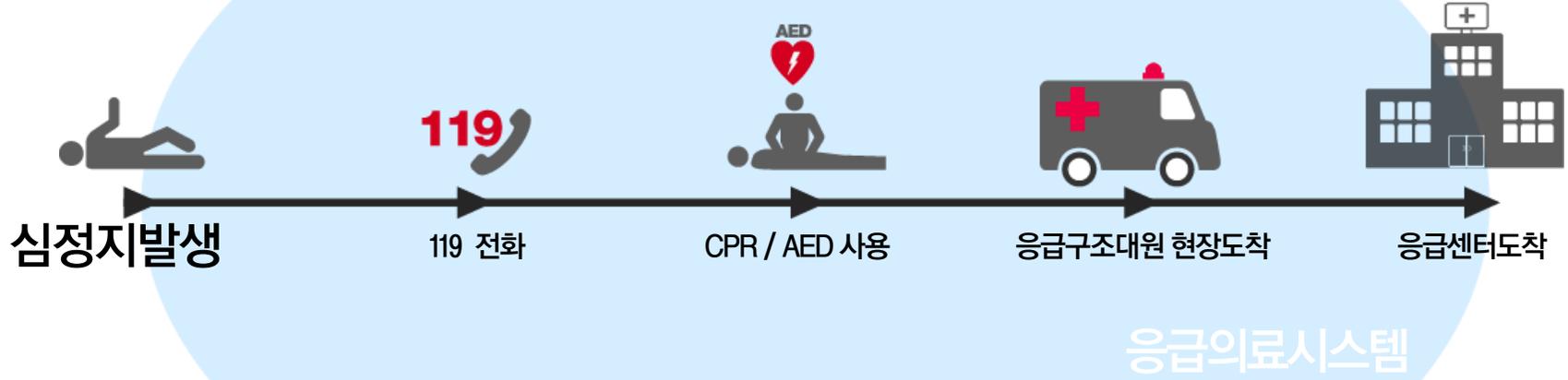
- 사업개요
- 일정, 추진실적 및 추후계획
- 프로젝트 관계자 및 협력기관
- **ALIGN**
- **DISCOVER**
 - Safari & Shadowing
 - In depth interview
 - 전문가인터뷰
 - 일반인 인터뷰
 - Desk research
 - 법률
 - 교육제도
 - AED 설치 및 관리 현황
 - 교육활동 및 홍보현황
- **DEFINE**
 - Opportunity Web
 - Key findings & Insight
 - Core Value & Principle
- **DEVELOP**
 - Workshop
 - Final Design developing
- **DELIVER**
 - Output 디자인 제작
 - 시범사업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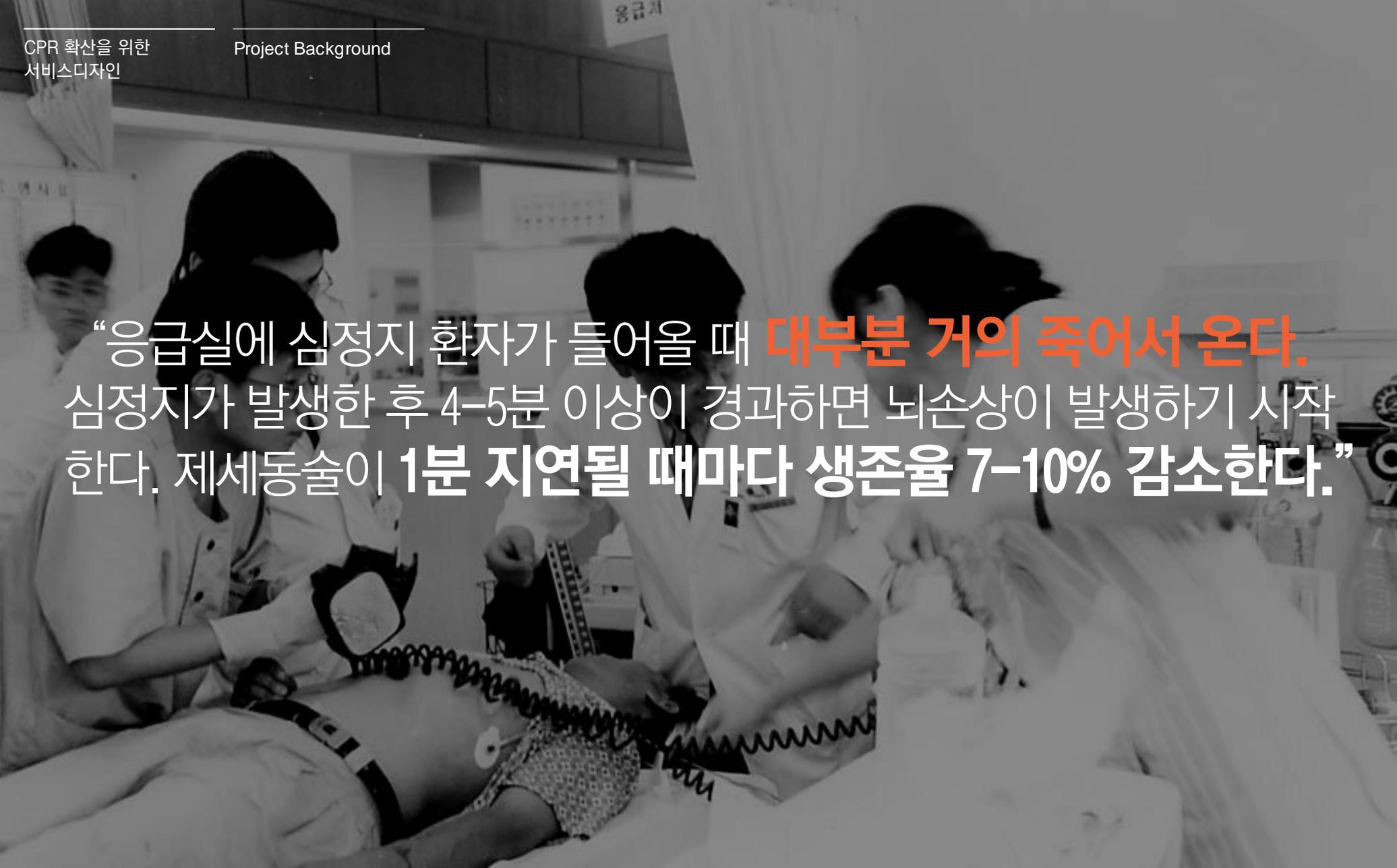
PROJECT BACKGROUND

“심정지 관련 질환은 사망원인 2, 3 순위를 차지하며 (2008),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심정지 사망자 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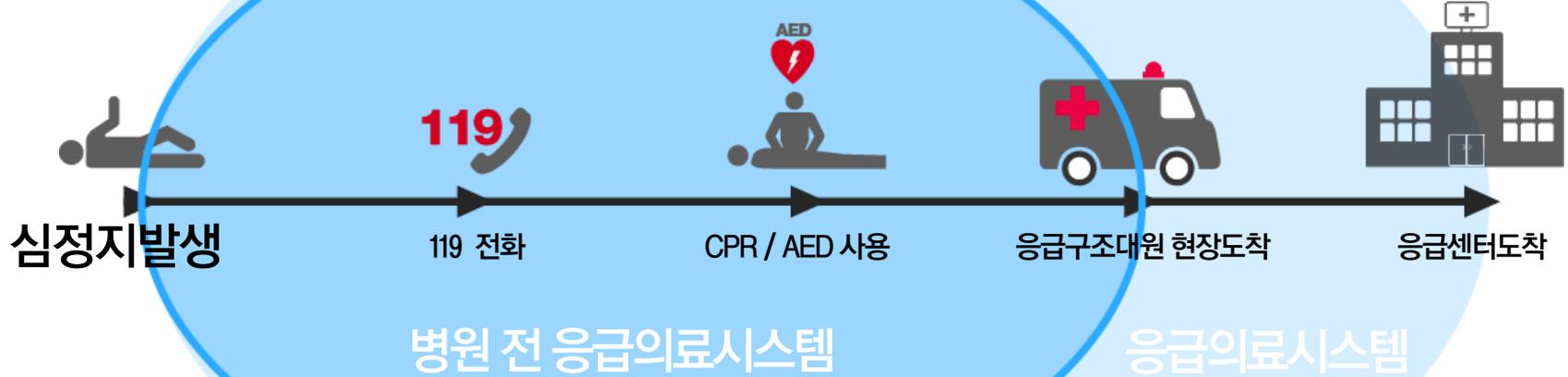








“응급실에 심정지 환자가 들어올 때 **대부분 거의 죽어서 온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4-5분 이상이 경과하면 뇌손상이 발생하기 시작
한다. 제세동술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생존율 7-10%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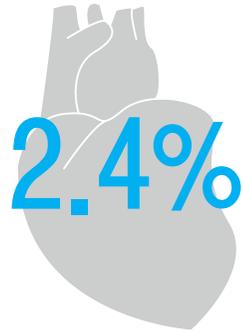


“이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1 차 목격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심폐소생술의 부재**로 인한 결과이다.”

심정지환자 생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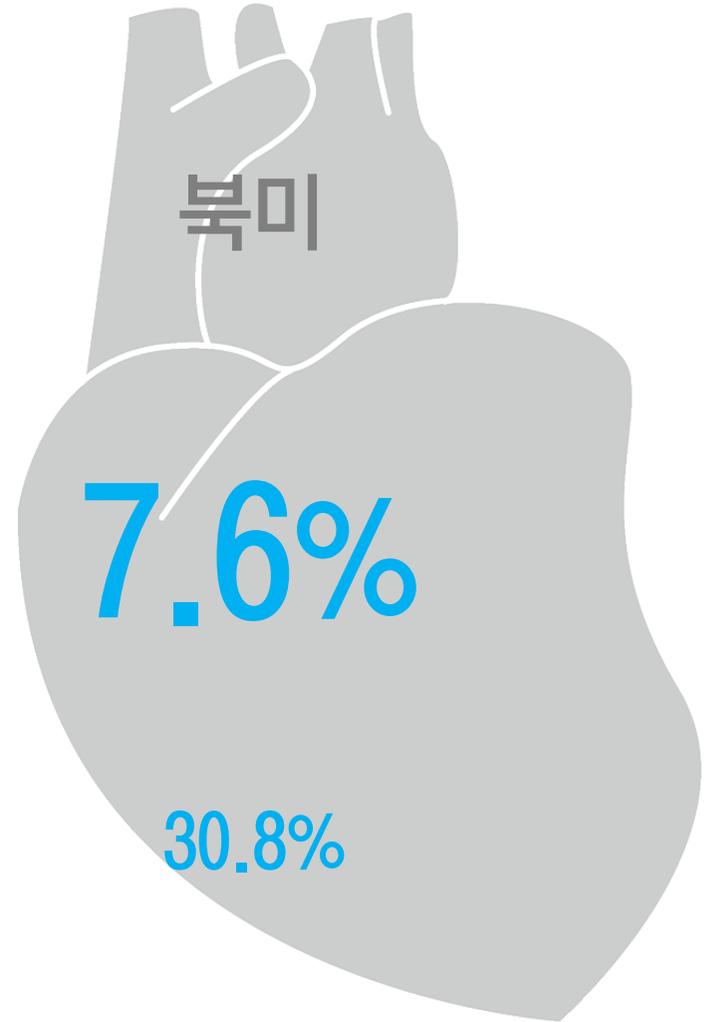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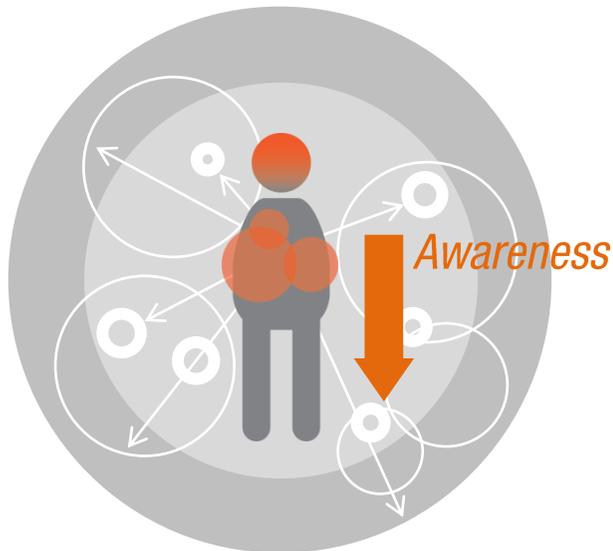
2~10%

북미



30.8%

궁극적인 차이는 응급의료체계보다 일반인의 **응급의료, CPR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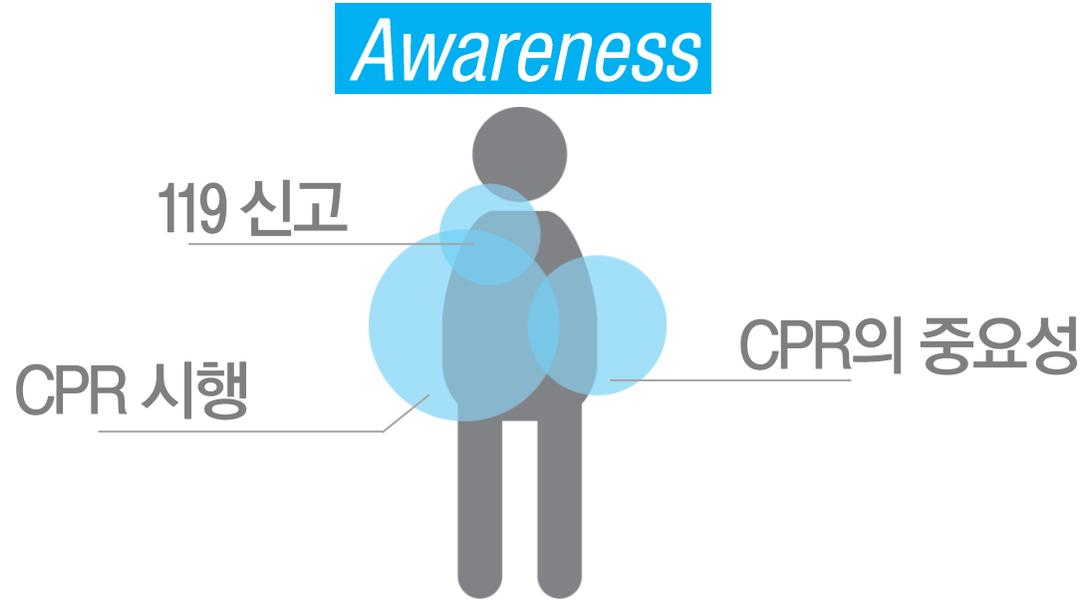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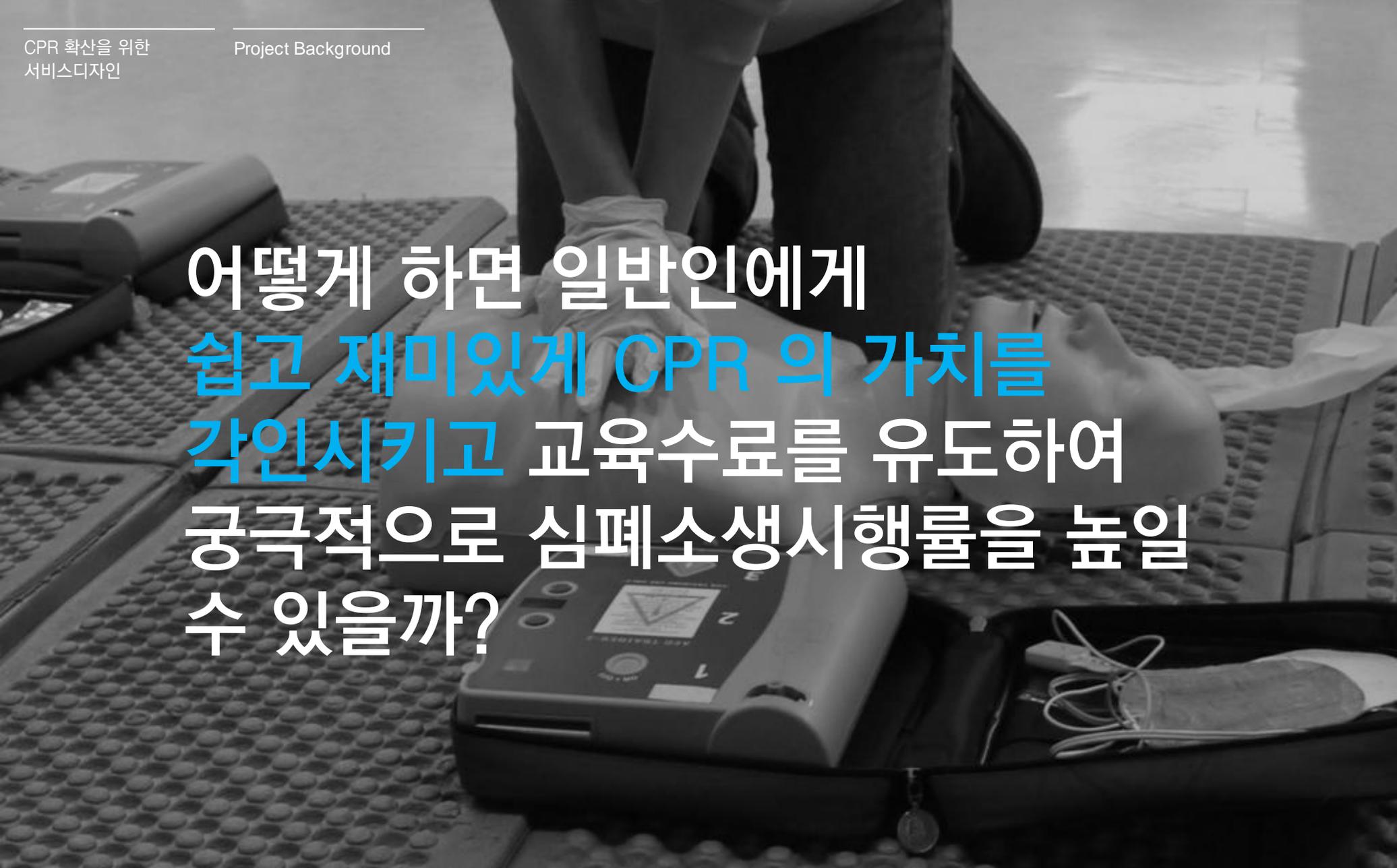
국내응급의료체계



해외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 CPR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어느 수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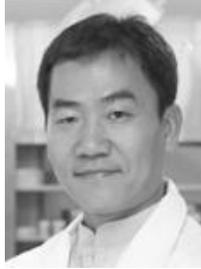
A grayscale photograph showing a person's hands performing CPR on a training mannequin. An AED is visible in the foreground, and a first aid kit is open to the right. The background is a plain wall.

어떻게 하면 일반인에게
쉽고 재미있게 CPR의 가치를
각인시키고 교육수료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심폐소생시행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의료전문가 (응급의학과교수)



이중의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김명천 교수
경희대강동병원



조규종 교수
강동삼성병원



임 훈 교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박인철 교수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오범진 교수
서울아산병원



곽명관 교수
서울아산병원

CPR 전문가 (교육자 및 협회관련자)



송근정 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삼성서울병원



강구현 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한림대강남삼성병원



이창희 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장



나학록 대표
CU MEDICAL
AED 제조업체



현청용 계장
소방방재청
119 구급과 교육훈련계장



오상목
소방방재청
119 구급과



이주영 팀장
한국생활안전연합



이종구 사무차장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협력기관 및 이해관계자



허영 PD
한국 산업기술 평가



손동범 실장
한국 디자인 진흥원



채윤병 팀장
한국 디자인 진흥원



윤성원 과장
한국 디자인 진흥원



김신 사무원
한국 디자인 진흥원



정지훈 소장
명지병원
IT 융합 연구소장

서비스 컨설팅



이경미 대표
사이픽스



팽한솔 팀장
사이픽스



송혜민
사이픽스



윤수정
사이픽스



이재운
사이픽스



박지선
사이픽스

협력기관 및 이해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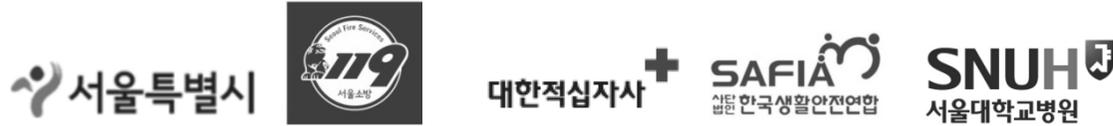
CPR 보급확산 MOU



AHA 가이드라인 한국화 배포 관련조직



시민서포터즈 관련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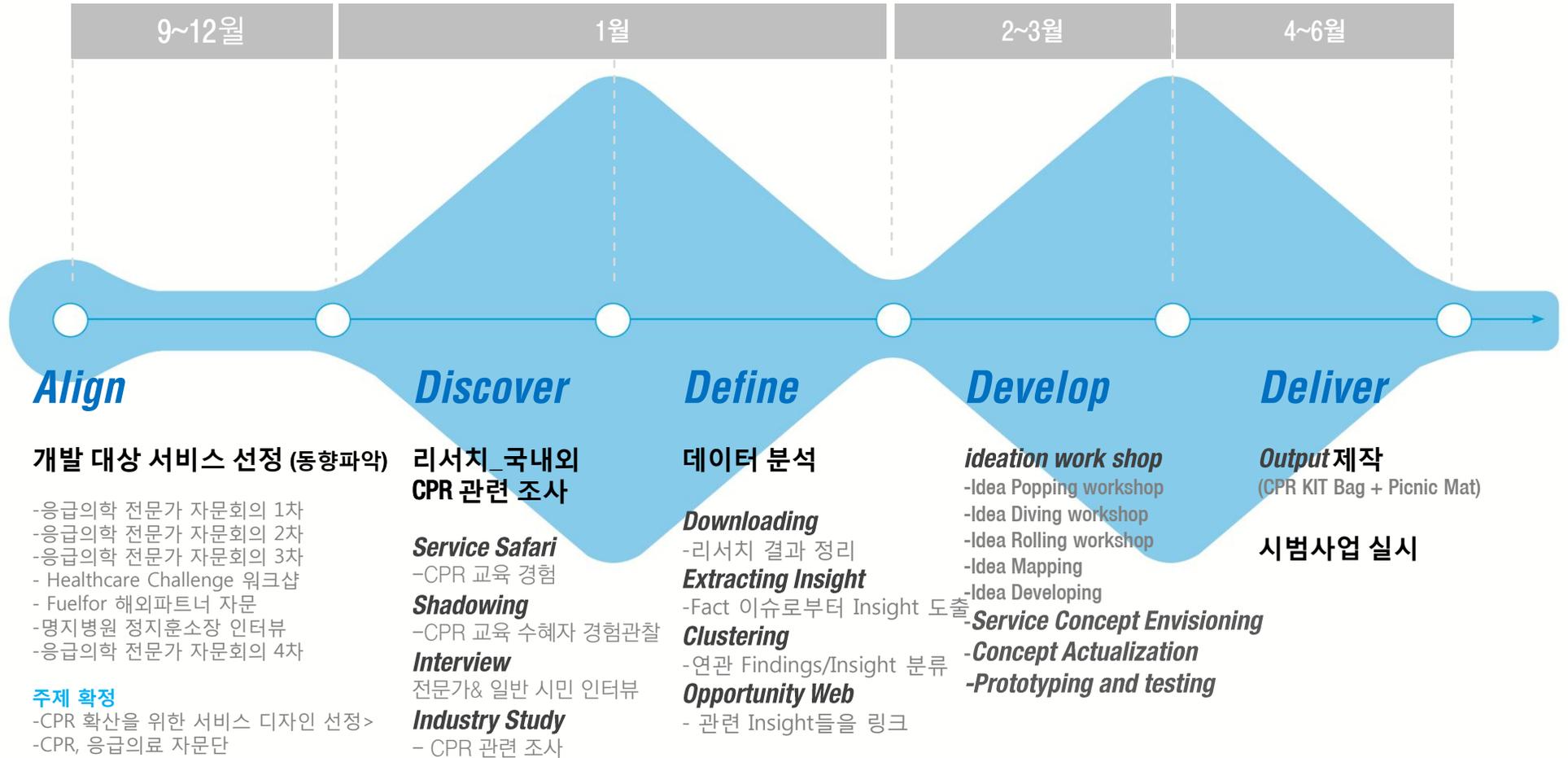
25개 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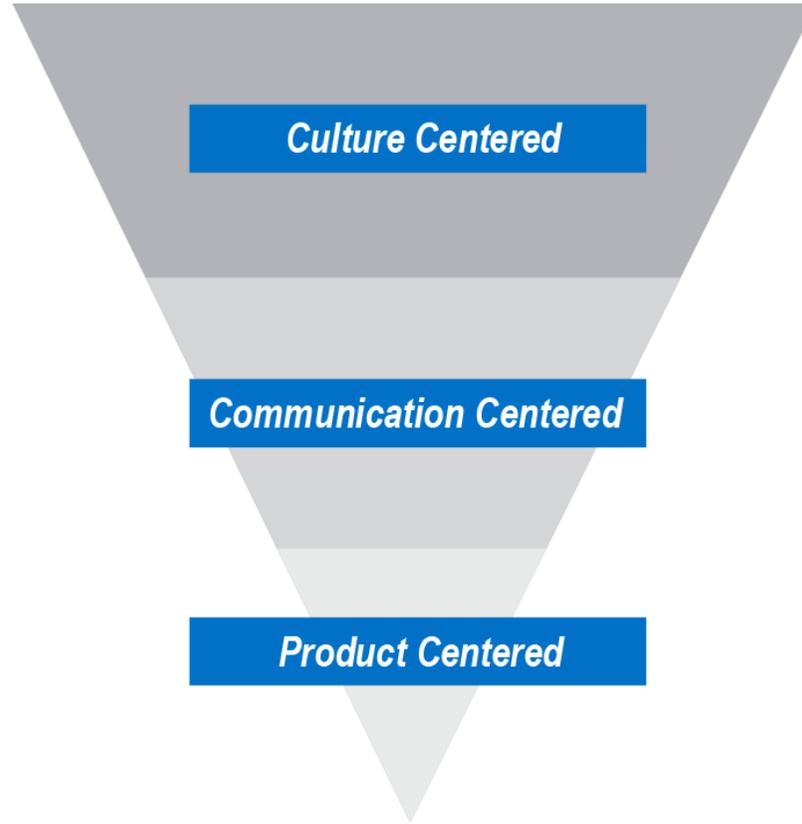
AED 제도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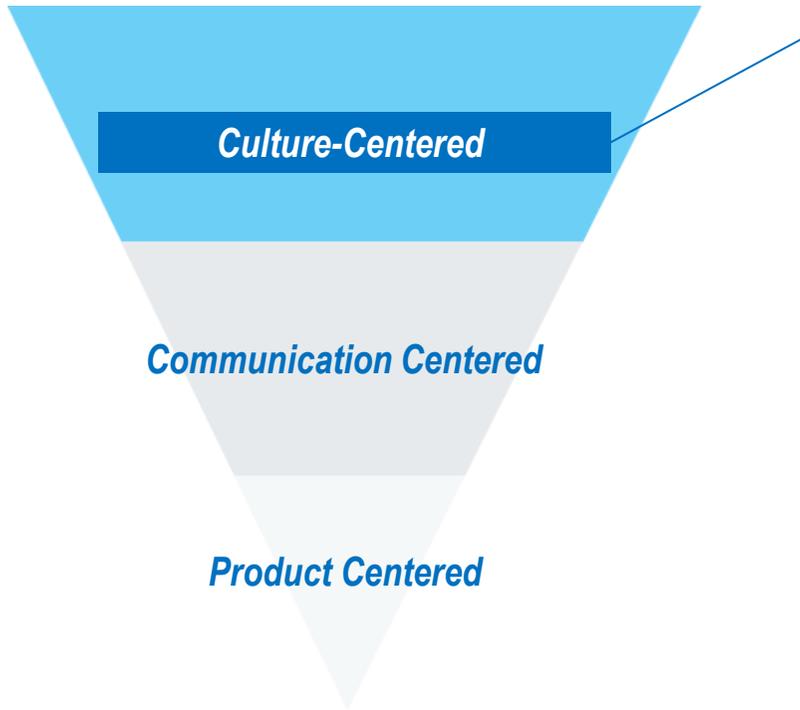


문정림 국회의원
새누리당

HOW WE LEAR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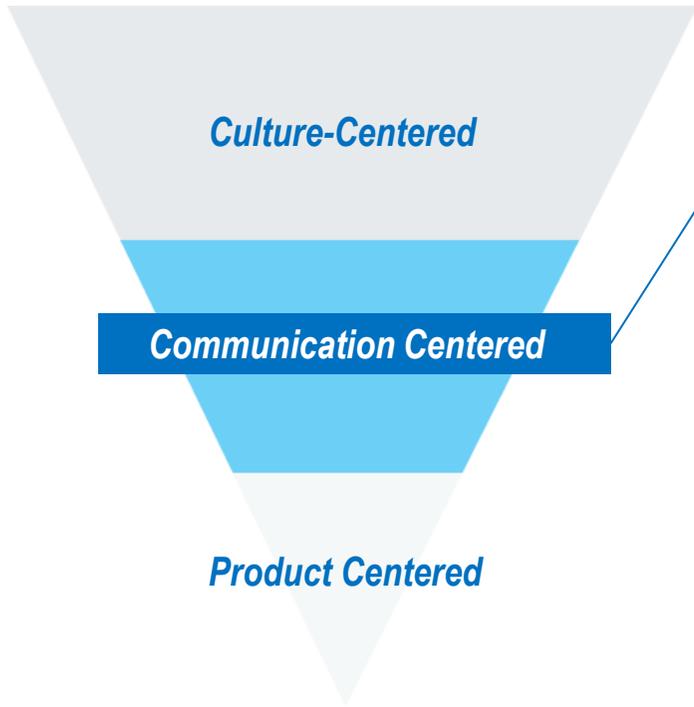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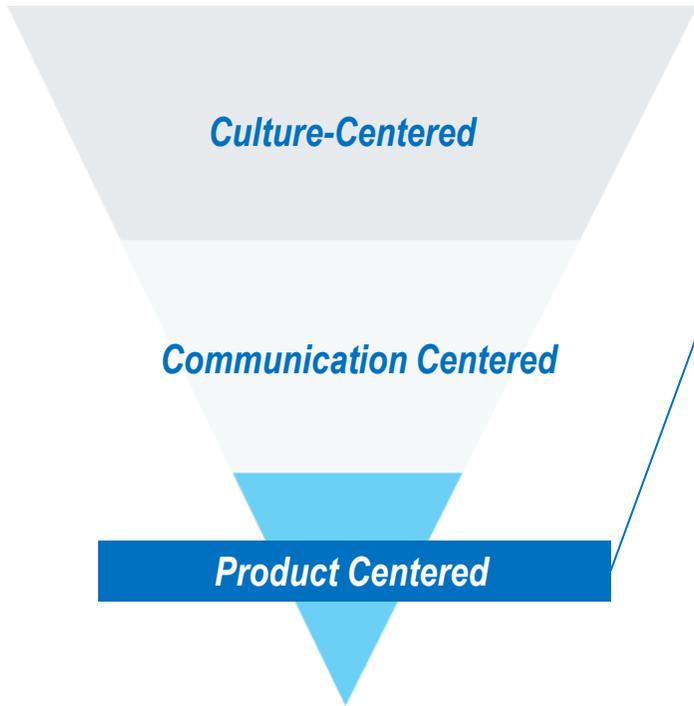
Culture-Centered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대한 문화와 인식에서 국민들은 어떤 Needs를 갖고 있는가. 리서치를 통해 발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적, 심리적 이슈를 어떻게 CPR에 대한 인식 개선 방법으로 끌어내갈 수 있을까?



Communication Centered

현재 국내 응급의료에 대한 정보제공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과 이슈를 발견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CPR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Interact할 수 있는 Insight**를 찾아본다.



Product Centered

응급상황 발생 시, 그리고 교육수료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사용자의 needs 를 반영하여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교육을 수료하고 실제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시행을 돕는다.

Service Safari

- CPR 교육 경험

DISCOVER



Shadowing

- CPR 교육 수혜자 경험관찰



Interview

- 전문가 & 일반 시민 인터뷰



Industry Study

- CPR 관련 조사



Service Safari & Shadowing

4 SERVICE DESIGNERS 대한심폐소생협회 CPR교육





Trainee

교육 수료자

Flow

교육 프로세스
진행 Flow

Environment

교육자, 수료자의
공간 활용도

Patient	Flow (의사의 업무 흐름)	Environment (공간/동선)	Tool (진료도구, 설명도구)	Communication (환자와 대화)	Information (정보의 종류)
Pain point & Insight 과정에 어떤 Pain point가 있는지를 작성					

Tool

교육자료와 실습용품
활용도

Communication

수료자에 따라 어떤 대화
방식을 취하는지 파악

Information

수료자에게 설명을 돕기
위한 정보 활용 방식

Environment

Contents

Tool

실제응급
상황

괴리감

CPR 교육
환경



Environment

CPR교육을 받는 환경이 실제 긴박한 응급환경과 동떨어져 몰입하기 어려움이 있다.

“실제 심정지가 발생할 만한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ontents

CPR 교육 Contents가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는다.

“쇠골 뼈를 ‘빗장뼈’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못알아 들었어요.”

Tool

강사와 교육용 장비의 Feedback이 불충분하여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확신이 안 들어요.”

Environment

Contents

Tool

실제응급
상황

Re-link

CPR 교육
환경



Interview

5 교육전문가 *INTERVIEW*

4 일반인 *INTERVIEW*

3 교육수료자 *INTERVIEW*

8 협회관련자 *INTERVIEW*



전문가 In-depth Interview

송근정 교수님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대한심폐소생협회 BLS 위원장



이창희 교수님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장
대한심폐소생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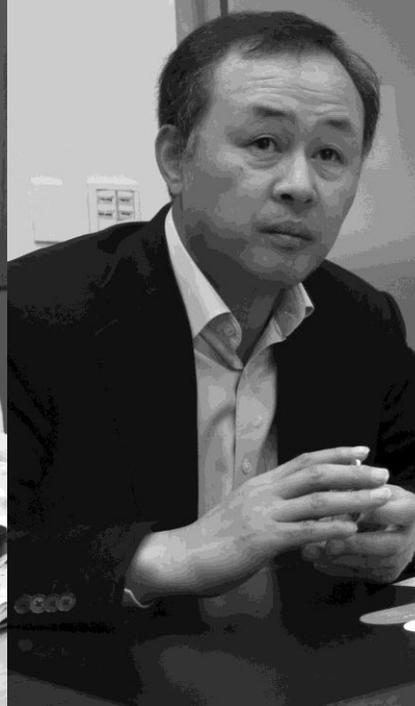
강구현 교수님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장
대한심폐소생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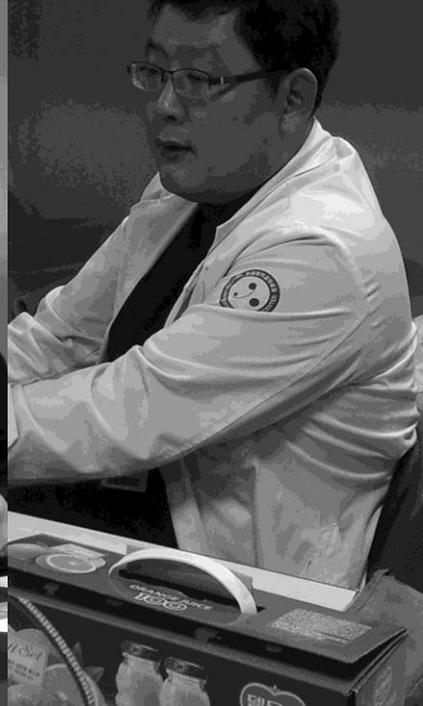
나학록 대표이사

(주) 씨유메디칼시스템
AED제품개발 및 생산



조규종 교수님

한림대학교의료원
강동성심병원





Date

2013. 01. 14 pm 15:00

Interviewee

송근정 교수님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대한심폐소생협회 BLS 위원장

“일반인에게 119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심정지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어야 한다.”

“의료진의 교육 목표는 퀄리티 있는 정확한 CPR이고, 일반인의 교육목표는 응급상황을 인지해 도움을 요청하고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식을 배양하는 것이다.”



Date

2013. 01. 17 pm 18:00

Interviewee

이창희 교수님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장
대한심폐소생협회

“CPR을 시행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나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불안감이 벽으로 있다.”

“심정지 환자는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자기 가족한테도 CPR을 못해주는 것이 현 상황이다.”



Date

2013. 01. 15 pm 3:00

Interviewee

강구현 교수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장
대한심폐소생협회

*“우리 의료진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의료진들이다 보니 일반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디자이너들이 일반인의 시각으로 그들에게 좀 더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요소들을
끌어내 주었으면 한다.”*



Date

2013. 02. 04 am 10:00

Interviewee

조규종 교수님
한림대학교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일반 시민들은 매우 바쁘다. 1시간도 그 분들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CPR 홍보를 좀 더 일반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 **CPR교육에서 같이 필수적인 AED 교육에서 마네킹을 통한 실습이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사용자를 고려한, 보다 더 친근한 마네킹이 있다면 CPR 교육에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일반인 In-depth Interview





Date

2013. 01. 18 pm 5:00

Interviewee

윤혜영 일반인
취업 준비생
CPR 교육재수강자

“예전에 받았던 CPR 교육에서 인공호흡이 빠진 지금의 교육방식이 더 쉽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도 시행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외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CPR 교육을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상황에서 내가 만일 CPR을 잘못 시행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알고 나니 안심이 된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었으면 한다.”



Date

2013. 01. 17 am 10:00

Interviewee

장윤아 일반인

전업주부
3살 유아 엄마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CPR교육을 받았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재미있었고 새로운 경험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아이를 위한 기도확보방법은 TV로 많이 접해서 심폐소생술보다는 더 잘 시행할 것 같다.”

“바쁜 일상 속에 직접 심폐소생술 교육을 배우려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Date

2013. 01. 17 pm 2:00

Interviewee

장윤아 일반인
영어유치원 부원장
신생아 엄마

“직장에 다니다 보니 **바빠서** 아이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도 따로 못 받고 **꼭 가야만 했던**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나 받을 수 있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 **보고 들은것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닥쳤을 때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는 않다.”

“예전에 **어렸을 때 배우는 생활상식관련 노래** ‘Lefty Loosy, Righty Tightly~’ 같은 것들이 커서도 **추억이라** 그런지 많이 **기억에 남는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코 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Desk research

논문

국내외
CPR 교육
+
홍보사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사례

다양한 CPR
교육환경사례

CPR 교육에서
시행율이 높고
파급효과가 높은
유저층

서적

한국사람들의
문화/심리적
요소가
CPR 시행률에
미치는 영향

on-line research

CPR의 지속
적인 교육시스
템 현황

즉각적인
CPR 시행으로
이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식

법의 강제성

국내

제5조의2항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 한다.

제 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구급차등의 운전자, 택시 및 버스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소방서의 구급대원 및 구조대원,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교육 대상자, 인명구조요원 등의 대상자를 규정. 교육시간은 4시간.

해외

프랑스 (신형법 223-6조 2항)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 에 처한다.

폴란드 (247조)

"개인적인 위험에 처쳐 본인 또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금고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인디애나주 (code 20-19-3-6,2005)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기간에 있는 아동 을 위하여 보건체육프로그램은 CPR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영국

만5세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아동들을 안전교육을 법과적 요소를 중요하게 다루고 사회, 건강교육, 시민교육 과목에서 중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법의 강제성

국내

선택

제5조의2항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응급환자를 만류한 행위자 본인에 대한 형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은 남면 한다.

**국내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한다.**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구급차 등의 운전자, 택시 및 버스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소방서의 구급대원 및 구조대
원,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교육 대상자, 인명구조요원 등의 대상자를 규정. 교육시간은 4시간.

해외

의무

프랑스 (신형법 223-6조 2항)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폴란드 (247조)

"개인적인 위험에 처쳐 본인 또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금고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인디애나주 (code 20-19-3-6,2005)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기간에 있는 아동을 위하여 보건체육프로그램은 CPR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영국

만5세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아동들을 안전교육을 법교과적 요소로
중요하게 다루고 사회, 건강교육, 시민교육 과목에서 중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교육 시스템

국내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제정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

2005년부터 “내 가족의 심장은 우리가 지키자” 캠페인,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을 각 가정에 보내는 국민운동 실시.
(대한심폐소생협회, 2005)

응급의료체계 영역

초등학교 저학년 : 1.6%
초등학교 고학년 : 9.5%
중학교 : 69.3%
고등학교 : 20.6%

2009년부터 초, 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초등학교 : 5, 6학년, 재량활동 시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
중학교 :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연간 17시간 이상 실시
고등학교 : 선택과목(교양 과목군)으로 실시

보건 교육과정 중 응급처치 관련 영역 수록 %
5학년 10.0%, 6학년 6.66%

보건 교육과정 중 심폐소생술 영역 수록 %
5학년 0%, 6학년 3.33%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1,000곳을 선정하여 한 학급씩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 하는 사업 진행.

해외

미국

미국심장협회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서 노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Family & Friends CPR Course” 를 통해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학교 보건교육의 6% 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에 사용된다.
최초 반응자를 위한 교육이 1966년 고속도로 안전 법률에 명시.
직업별 특성에 따라 40-110시간 동안 교육내용을 달리하여 실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
성인의 90% 가 심폐소생술의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

호주

전체 보건교육 중 **15% 를 응급처치 교육으로 할애**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기초 1단계 유치원부터 3단계 5,6학년에서 다루고 있다.

영국

안전 교육은 ‘개인, 사회, 보건교육’ 영역의 필수요소로 기본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긴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배운다.

노르웨이

1961년부터 심폐소생술 실기교육을 **초등학교의 정규과목으로 지정** 되어 있다.

교육 시스템

국내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제정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

2005년부터 “내 가족의 심장은 우리가 지키자!” 캠페인,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을 각 가정에 보내는 국민운동 실시.
(대한심폐소생협회, 2005)

응급의료체계 영역

초등학교 : 0.5%
중학교 : 69.3%
고등학교 : 20.6%

2009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초등학교 : 5, 6학년, 재량활동 시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
중학교 :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연간 17시간 이상 실시
고등학교 : 선택과목(교양 과목군)으로 실시

보건 교육과정 중 응급처치 관련 영역 수록 %
5학년 10.0%, 6학년 6.66%

보건 교육과정 중 심폐소생술 영역 수록 %
5학년 0%, 6학년 3.33%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1,000곳을 선정하여 한 학급씩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 하는 사업 진행.

해외

미국

미국심장협회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서 노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Family & Friends CPR Course” 를 통해 기본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학교 보건교육의 6% 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에 사용된다.
최초 반응자를 위한 교육이 1966년 고속도로 안전 법률에 명시.
직업별 특성에 따라 40-110시간 동안 교육내용을 달리하여 실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

성인의 99% 가 심폐소생술을 생애에 한 번 이상 배운 적이 있다고 하였다.

호주

전체 보건교육 중 15% 를 응급처치 교육으로 할애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기초 1단계 유치원부터 3단계 5,6학년에서 다루고 있다.

영국

안전 교육은 ‘개인, 사회, 보건교육’ 영역의 필수요소로 기본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긴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배운다.

노르웨이

1961년부터 심폐소생술 실기교육을 초등학교의 정규과목으로

지정 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국내에 비해 CPR 교육의 비중을 크게 더룬다.

관련 협회

국내

대한심폐소생협회

-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지침 제정

- 심폐소생술에 대한 연구

- 심폐소생술 지침의 전파 및 교육

- 심폐소생술에 관한 국제단체와의 교류를 담당

대한 적십자사

- 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적십자 기본원칙, 적십자 국제회의의 결의 사항 등에 입각하여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하는 인도주의 사업을 국내외에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온라인센터 운영

- 소방공무원 및 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구조사의 역할

- 응급구조사들의 현실적, 제도적 장벽 타개를 위한 노력

LKS (Life Saving Society Korea)

- 지속적인 연구와 대중 교육을 통해 익사를 예방하고 생활 응급처치를 활성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이 사명

해외

미국심장협회 (AHA)

세계최초로 심폐소생술을 표준화하여 가이드라인 발표.

-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학술기관으로 참여하여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

2010년 10월 새로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발표.

Citizen CPR Foundation

- 1987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

- 2년에 1회의 ECCU Update 개최

- 시민, 교육자, 연구자, 관련기업 참여

-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심폐소생술 확산

- 일반인의 참여 증가

- 심폐소생술 관련 장비, 기기의 일관성 유지

American Red Cross (미국적십자사)

- 일반인 First Aid, CPR & AED 교육은 산업장내 일차반응자, 학교 교직원 뿐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을 조정하고 있음

-일반인 CPR 교육과정 중 **가슴 압박 소생술 (Hands-only CPR) 교**

육과정의 경우 동영상을 이용한 30분의 교육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교육 주기는 2년**

관련 협회

국내

대한심폐소생협회

-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지침 제정
- 심폐소생술에 대한 연구
- 심폐소생술 지침의 전파 및 교육
- 심폐소생술에 관한 국제단체와의 교류를 담당

대한적십자사

-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제외인력의 사항 등에 입각하여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하는 인도주의 사업을 국내외에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온라인센터 운영
- 소방공무원 및 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구조사의 역할
- 응급구조사들의 현실적, 제도적 장벽 타개를 위한 노력

LKS (Life Saving Society Korea)

- 지속적인 연구와 대중 교육을 통해 익사를 예방하고 생활 응급처치를 활성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이 사명

해외

미국심장협회 (AHA)

세계최초로 심폐소생술을 표준화하여 가이드라인 발표.

-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학술기관으로 참여하여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

2010년 10월 새로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시민심폐소생술협회 (Citizen CPR Promotion)

- 1987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
- 2년에 1회의 ECCU Update 개최
- 시민, 교육자, 연구자, 관련기업 참여
-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심폐소생술 확산
- 일반인의 참여 증가
- 심폐소생술 관련 장비, 기기의 일관성 유지

American Red Cross (미국적십자사)

- 일반인 First Aid, CPR & AED 교육은 산업장내 일차반응자, 학교 교직원 뿐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을 조정하고 있음

- 일반인 CPR 교육과정 중 가슴 압박 소생술 (Hands-only CPR) 교육과정의 경우 동영상을 이용한 30분의 교육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교육 주기는 2년

국내의 심폐소생협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식 교육 홍보

국내

서울시

-2011년에 일반인 CPR 확산 및 자동제세동기 (AED)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힘.
심폐소생술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4시간으로 구성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중에서 특화한 1시간용으로 단축보급형교육을 보급할 예정.**

시민서포터즈

- 서울시는 내년까지 위험에 처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4분 심폐소생술' 시민서포터즈(시민응급구조사) 1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 각 자치보건소와 서울대학교 병원을 통해 신청한 시민들 대상으로 CPR교육 실시, 이중 자원봉사에 동의한 시민을 CPR를 시민 서포터즈로 등록, 시민서포터즈는 cpr 시민강사, CPR 교육받은 시민, AED 자동제세동기 관리자로 구성.
- 이들은 **환자발생 3km 내에 있을 경우 자기가 SNS 문자 받아 구급차 도착전까지 CPR 실시** 하여 생존률을 높인다.

소방서

- 소방서 **연말, 연시 CPR홍보 캠페인: 연중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싶은 기관이나 단체는 대응구조팀으로 신청.

Heart Saver 제도 운영

- **사고로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생명을 구한 119구조대원에게 주어지는 것.** 일상생활 중 갑자기 심장이나 호흡이 정지된 사람을 병원 도착 전까지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인명을 구해낸 구급대원을 선정하는 제도.

해외

일본_ Push Project

일본 오사카현 에서는 전주민의 15%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심폐 소생술의 보급을 위해서 Push 프로젝트** 를 진행. PUSH 과정은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흉부 압박과 AED 사용'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개발.**

네덜란드_ Dutch Heart Foundation: QR Bystanders

네덜란드의 심장재단은 QR코드를 이용해서 의사나 CPR을 배우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나 다른 어떤곳에서도 비슷하게 방관만 하고 있게 될 듯합니다. 네덜란드 심장재단은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갑작스런 심장정지로 쓰러졌을 경우에 사람들이 **사전 교육이 없이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알려주는 어플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기발한 광고를 집행.**

미국_EFR (EMERGENCY FIRST RESPONSE)

- EFR은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으로 CPR과 응급처치 교육으로 인정받는 단체**
- 미국에 본사, 교육은 센터에서 진행.
- 강의보다는 실습중심,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시간의 절약과 함께 실제 상황에서의 응급 구조 스킬을 향상 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
- 4시간 교육 내용: 구조호흡, 성인 CPR, 출혈관리, 쇼크관리, 자동 심실제세동기 AED 사용, 질식관리를 통해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응급처치 자격증을 발급.**

의식 교육 홍보

국내

서울시

- 2011년에 일반인 CPR 확산 및 자동제세동기 (AED)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힘.
심폐소생술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4시간으로 구성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중에서 특화한 1시간용으로 단축보급형교육을 보급할 예정.**

시민서포터즈

- 서울시는 내년까지 위험에 처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4분 심폐소생술 시민서포터즈(시민응급구조사) 10만 명을 양성한다'고 밝힘.
- **국민의홍보**는 **시민서포터즈**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기획하고, 이를 위한 **교육 콘텐츠**와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시민서포터즈에 동원한 **AED CPR**을 시민서포터즈를 통해, 시민서포터즈는 **cpr 시민강사**, **CPR 교육받은 시민**, **AED 자동제세동기 관리자**로 구성.
- **국민의홍보**는 **시민서포터즈** 내에 **홍보 담당자**가 **홍보 담당자** 받아 **구급처도착전까지 CPR 실시** 하도록 **홍보를 높인다.**

소방서

- 소방서 **연말, 연시 CPR홍보 캠페인: 연중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싶은 기관이나 단체는 대응구조팀으로 신청.

Heart Saver 제도 운영

- **사고로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생명을 구한 119구조대원에게 주어지는 것.** 일상생활 중 갑자기 심장이나 호흡이 정지된 사람을 병원 도착 전까지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인명을 구해낸 구급대원을 선정하는 제도.

해외

일본_ Push Project

일본 오사카현 에서는 전주민의 15%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심폐 소생술의 보급을 위해서 Push 프로젝트**를 진행. PUSH 과정은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홍부 압박과 AED 사용'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개발.**

네덜란드_ Dutch Heart Foundation: QR Bystanders

- **홍보 캠페인: QR 코드를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배우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QR 코드를 어떤곳에 두게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 네덜란드 심장재단은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졌을 경우에 사람들이 **사전 교육이 없이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알려주는 어플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기발한 광고를 집행.**

미국_EFR (EMERGENCY FIRST RESPONSE)

- EFR은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으로 CPR과 응급처치 교육으로 인정받는 단체**
- 미국에 본사, 교육은 센터에서 진행.
- 강익보다는 실습중심,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시간의 절약과 함께 실제 상황에서의 응급 구조 스킬을 향상 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
- 4시간 교육 내용: 구조호흡, 성인 CPR, 출혈관리, 소크관리, 자동 심실제세동기 AED 사용, 질식관리를 통해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응급처치 자격증을 발급.**

국민의홍보는 진부하여, 문화적 코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 시급

의식
교육
홍보



해외

Heart & Stroke Foundation

Heart & Stroke Foundation에서 집행한 **할로윈 맞이 CPR 홍보** 광고.

CPR이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CPR이 사람을 좀비로도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상황을 가장한 CPR 광고 영상.

→ **문화적 코드와 시기에 맞는
신선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Downloading

-리서치 결과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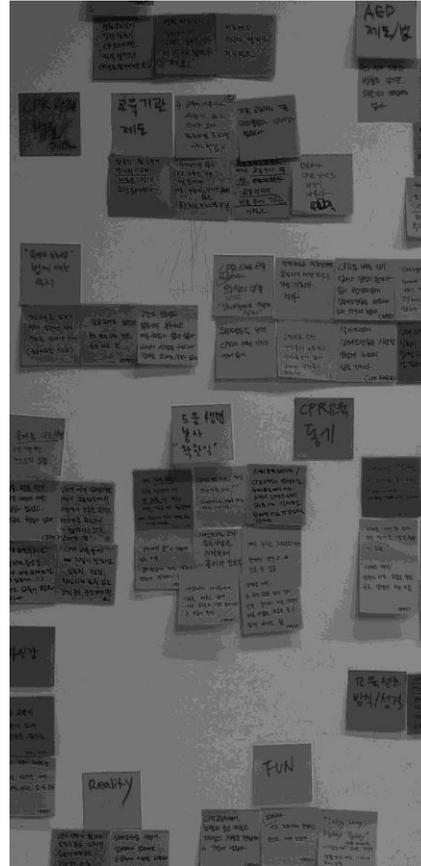
Extracting Insight

-Fact 이슈로부터 Insight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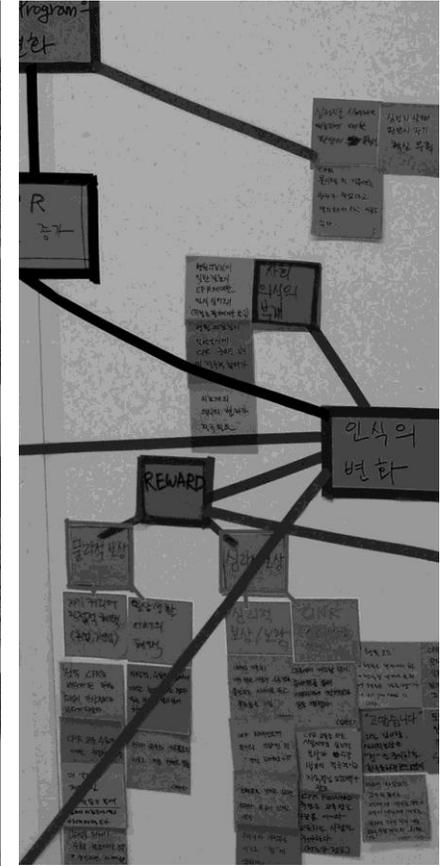
Clustering

-연관 Findings/Insight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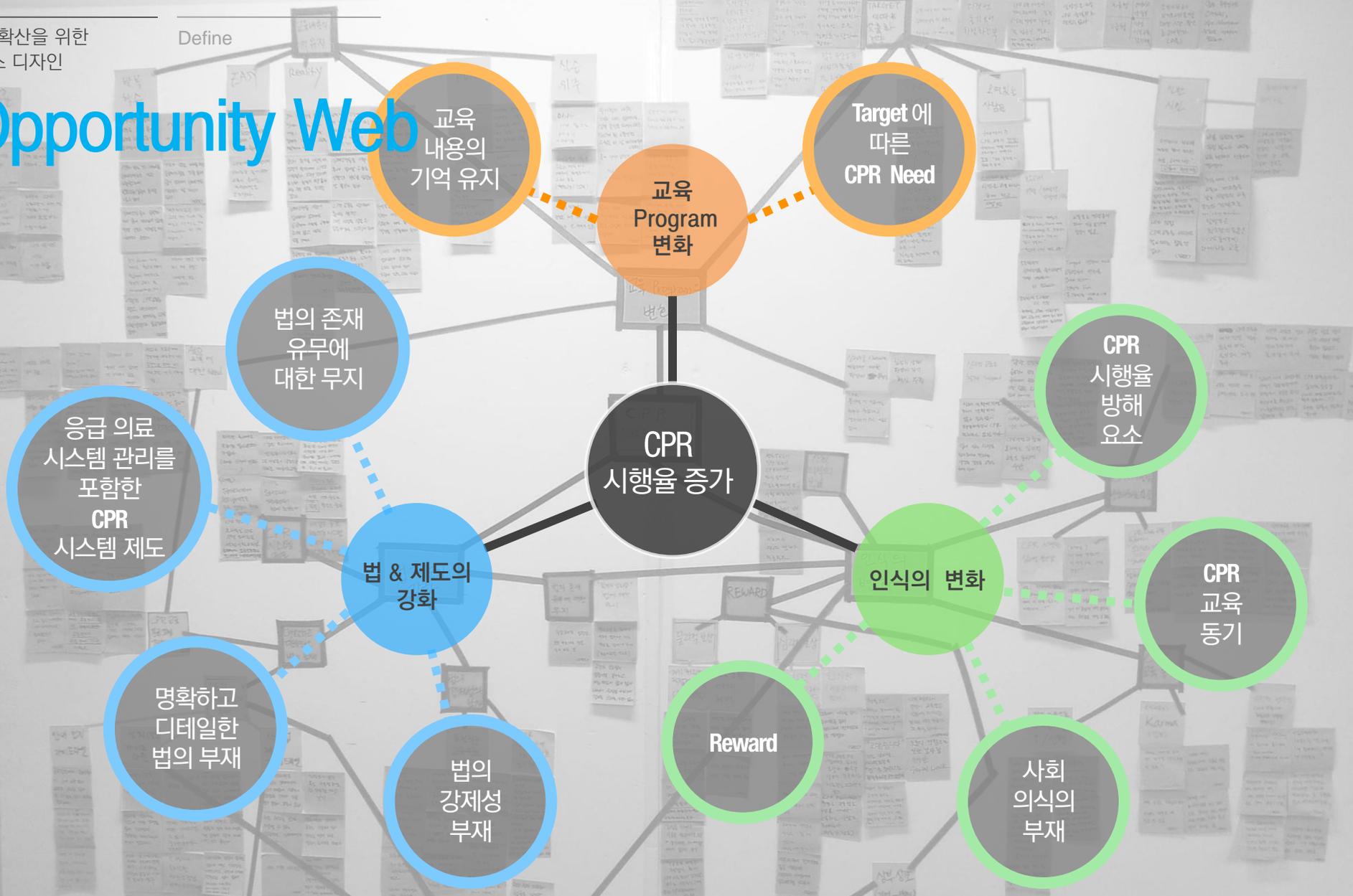


Opportunity Web

- 관련 Insight들을 링크



Opportunity Web



Opportunity Web

디자인기회요소

CPR
시행율 증가

교육
Program
변화

Target 에
따른
CPR Need

교육
내용의
기억 유지

CPR
시행율
방해
요소

인식의 변화

CPR
교육
동기

Reward

사회
의식의
부재

법의 존재
유무에
대한 무지

응급 의료
시스템 관리를
구현하

법 & 제도의
강화

명확하고
디테일한
법의 부재

법의
강제성
부재

WHAT WE FOUND?

Key Finding 01

No pressure, No burden

- 책임에 대한 두려움, 상황판단의 어려움,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 바쁜 한국인의 생활방식에 맞추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 잘못되더라도 하면...

나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텐데... 어찌지?”

“이거 괜히 관여해서 책임져야 하는 거아냐?”



법의 존재 유무에 대한 무지

“목격자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선뜻 나서서 사람을 구하거나 응급구조장비를 쓰려는
사람이 없다.”

“내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가.. **환자가 잘못되어서 나한테**
해가 올 것 같아서 나서서 못하겠다.”



상황판단 능력 부족

“사람이 쓰러졌는데…
뇌졸증인가? 빈혈이야?”

“숨도 안 쉬는데… 죽었나봐… 어떻게 해?”



CPR 시행에 대한 자신감 부족

“이거... 배우긴 했는데, 막상 하려니... 자신이 없네...”

“내가 한다고 될까?”

“내가...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러다 이사람 잘못 되는거 아냐?”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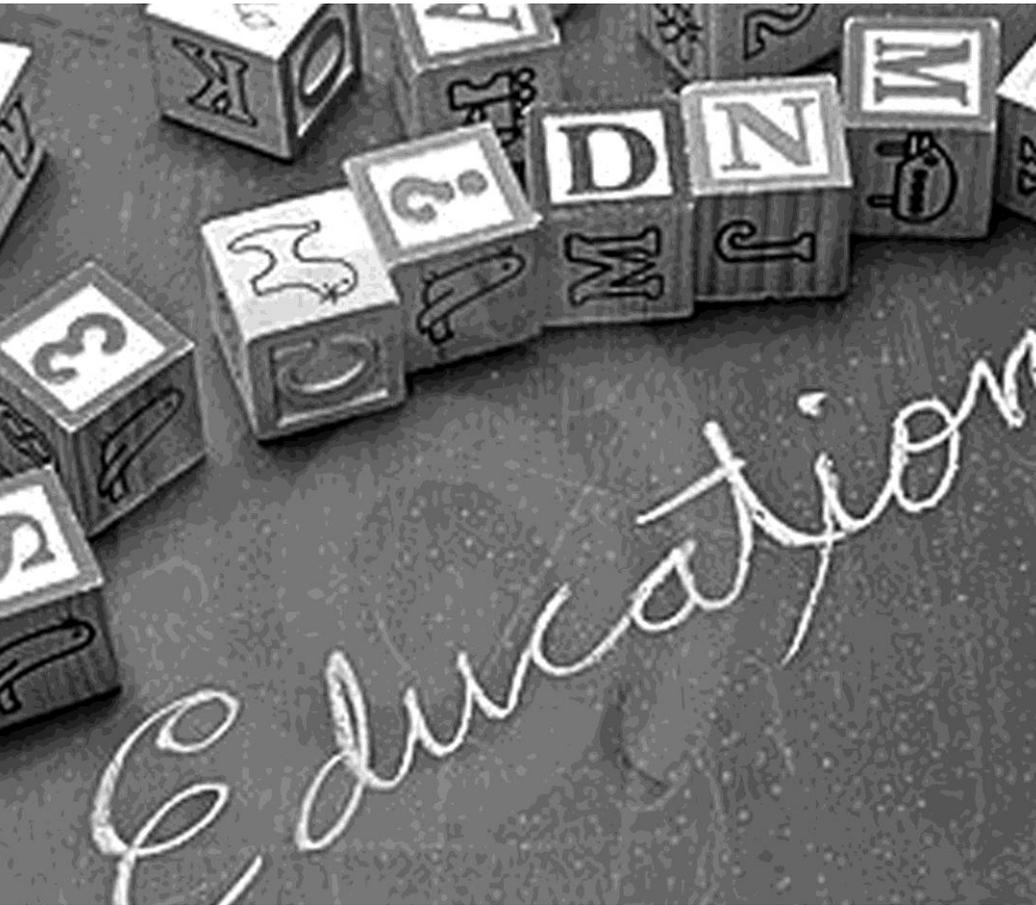
“처리해야 할 업무도 많은 데 나보고 2시간이나 할애
해서 교육 받으라고?”

“아이 때문에 어디든 쉽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시간을 따로 내는 건 좀...”

Key Finding 02

Have fun, have it easy And get familiarized

- 교육내용은 모든 대상자들의 인지수준에 맞추어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
- 재미있는 요소가 가미된 교육내용, 교육과정으로 수료자들이 교육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제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이 가능하여 실제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인의 인지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

“초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빗장뼈 아래에 패드를 붙여요’
라고 하면 당연히 못알아 듣죠.”

“일본은 CPR 교육을 하면서 AED 패드를 붙일 때 보다 쉬운
설명으로 전달을 해줘요. 심장을 중심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붙이라고.. 여기에서는 빗장뼈라고 하는데...”



이해가 쉽고 빠른 교육방식 필요

“AED 장비 사용법을 배울 때 매우 간단한 조작방법처럼 보이는 데에도 정작 내가 언제 사람들에게 협조정보를 외치고 정확히 어느 부위에 패드를 붙여야 하는지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반인에게 흥미 유발 이 부족한 교육방식

“CPR교육을 하면서 친구들과 웃고 경험을 공유하면 서서
로운 즐거운 시간들이 기억에 남아요.”

“ *Lefty Loosy, Righty Tightly* 라는 어렸을때 재미있고 간단한
노래로 기억한 생활안전 수칙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Key Finding 03

Use it, and remind yourself and people around you

- 수료자가 교육 후 일상생활에서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상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료자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교육을 주위사람들에게 쉽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료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며 주위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반복학습을 통한 교육필요

“한번 교육받고는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년, 매 후
년에 한번씩 재교육 받아야 그나마 좀 나아요”

“기도를 막힌 아이를 위한 응급처치법을 TV를 통해
많이 봐서 심폐소생술 시행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심폐소생술이 습관화 되어 몸에 익혀 있지 않으면 정작
상황에 닥쳤을 때 시행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주변사람들에게 소극적인 교육전달

“학교에서도 배우고 군대에서도 배웠지만 생각해 보니 **한번도**
주위사람들에게 제가 직접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심폐소생술교육 후 수료자들에게 공짜 간이 마네킹을 나눠
주고 집에 가서 주위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하기도 했는데 사
실 **그걸 가지고 막상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히는 실전 시행 필요

“지금까지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은 운전이에요. 왜냐하면 **이론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몸으로 익혀** 배웠기 때문이죠. 필기시험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실제 운전을 하면서 배운, 익히게 된 교통안전 수칙을 더 잘 기억하는 거죠.**”



실제 응급상황과 유사한 환경 속 Reality 교육

“학교에서 단체로 CPR 교육을 받았는데 그저 흉내내기 정도의 교육이었어요.”

“해외의 경우, 축구팀 응급구조요원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칠 때 축구장에서 교육해요. 최대한 실제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가르쳐야 실제상황에서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Key Finding 04

Use it

when you need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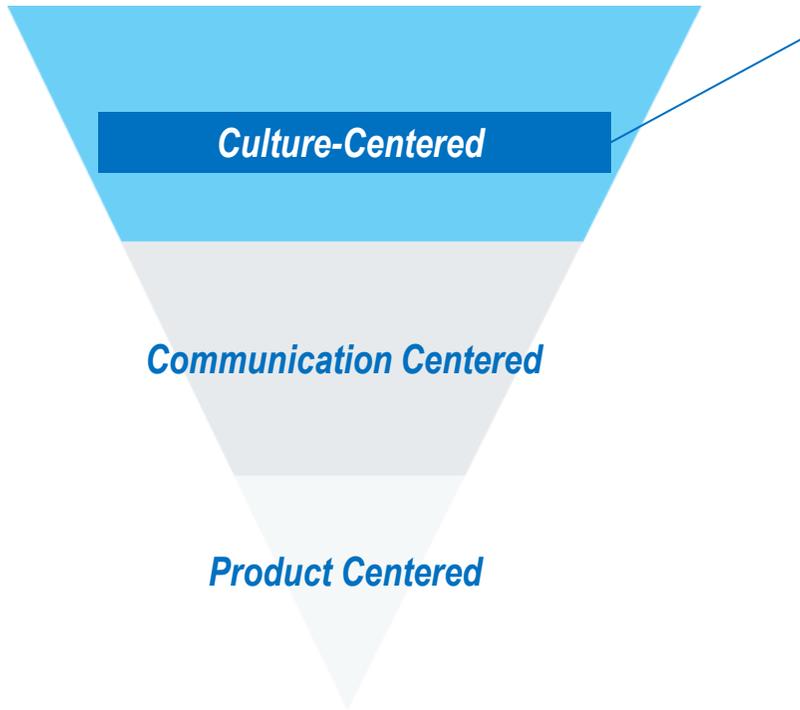
- 수료자가 실제 심정지 발생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의 부재

“실제 상황에서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
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침 같은 거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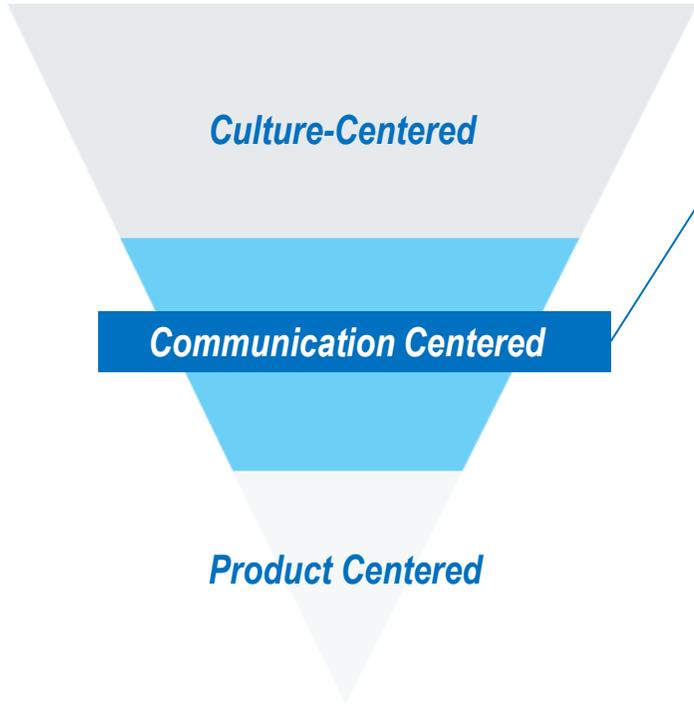
서비스 개발 컨셉의 구체화 (관점)



문화 거시적 관점 (*Culture-Centered*)

-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항 (선의를 응급의료에 대한면책)**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지속적으로 상기 시킬 수 있도록 제품에 표기
- 바쁜 한국인의 생활방식에 맞추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규교육의 **간략한 교육과정** 제공
- 수료자가 **교육 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 또는 교육을 전파하여 심폐소생술 (CPR) 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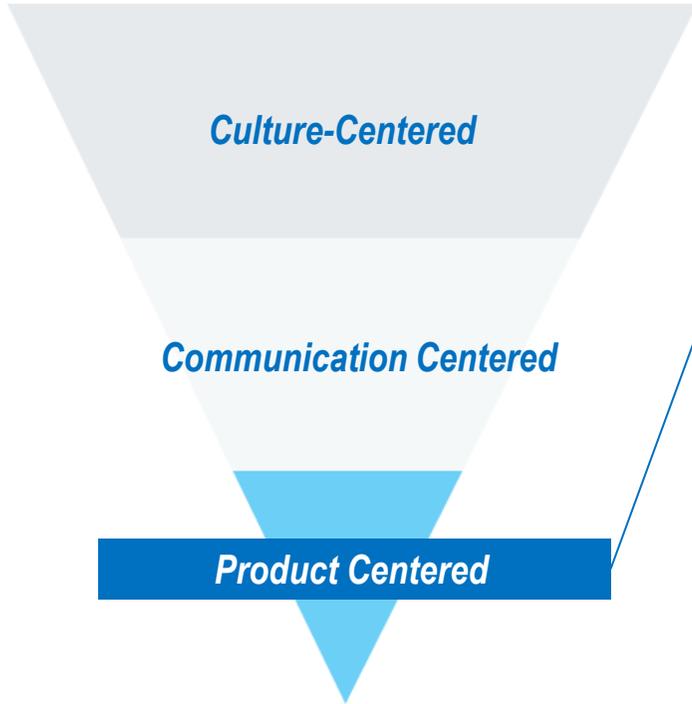
서비스 개발 컨셉의 구체화 (관점)



소통 관점 (*communication centered*)

- 수료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가 가미된 교육내용** 과 **교육 과정**으로 교육내용의 기억 유지를 도움
- 모든 대상자들의 **인지수준에 맞추어 쉽게 구성된 교육내용**과 방식으로 교육효과를 높임

서비스 개발 컨셉의 구체화 (관점)



물리적 제품 관점 (*product centered*)

- 실제 심정지 발생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교육 또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제품을 구상
 - 심폐소생술 교육내용이 담겨 있는 가방, Picnic Mat
- 실습 시 즉각적인 피드백 (feedback) 이 확실한 제품 구상
 - 심장압박 실습용품

디자인 원칙 (Design Principle)

1 “저렴해야 한다”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여 구매단가를 낮추어 심폐소생술관련협회와 개인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구매 가능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료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물론, 수료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함

3 “재미있어야 한다.”

교육 내용과 방식에 재미요소를 담아 교육내용의 기억유지를 도울 수 있어야 함

4 “쉬워야 한다.”

교육내용과 방식은 모든 대상자들의 인지수준에 맞추어 쉽게 구성되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5 “자극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을 받은 수료자들이 이 제품을 교육 후 일상생활에 사용하면서 보람과 자극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개발 목표 선정

CPR 교육용 Tool Kit

- 쉽게 접할 수 있는 간략한 버전의 교육
- 기억 유지를 돕는 교육내용 (재미요소)
- 타겟에 맞춤형한 CPR 교육내용 (쉬운)
- CPR 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 실제 심정지 발생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교육용품
- 실습 시 즉각적인 반응 (Feedback) 이 확실한 교육용품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용 Tool Kit 을 만들고 이 Tool Kit 을 교육 수료 후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함으로서 CPR 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CPR시행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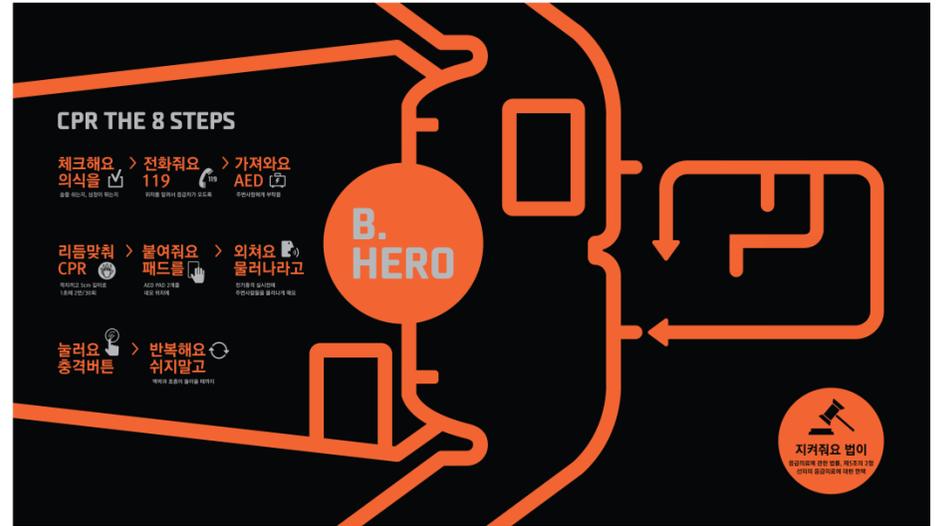
HOW WE SOLVED?

Key Solution 01

No pressure, No burden

- 책임에 대한 두려움, 상황판단의 어려움,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 바쁜 한국인의 생활방식에 맞추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Simplified CPR education



Simplified CPR education



B. HERO

CPR THE 8 STEPS

- 체크해요**
의식을
확인하
고, 심
장이 뛰
는지
- 전화해요**
119
위급
상황
을 알
려주
고, 응
급차
가 오
도록
- 가져와요**
AED
주변
사람
에게
부탁
하
- 리듬맞춰**
CPR
꼭지
고 5cm
깊이로
1초에
2번/30
회
- 붙여줘요**
패드
를
AED
PAD 2개
본
내오
 위치
에
- 외치요**
물러
나라
고
전거
출과
심사
전에
- 눌러요**
충격
버튼
- 반복해요**
쉬지
않고
약 2
분
동안
반복
하

지켜줘요 법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
신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제

No pressure, no burden_Idea.02

Legal indication

Product
Centered

Communication
Centered

Culture-
Centered



CPR 8 Step

CPR THE 8 STEPS

체크해요 의식을

숨을 쉬는지, 심장이 뛰는지

전화줘요 119

위치를 알려

CPR THE 8 STEPS

체크해요 > **전화줘요** > **가져와요**
의식을  **119**  **AED** 
 숨을 쉬는지, 심장이 뛰는지 위치를 알려서 응급차가 오도록 주변사람에게 부탁을

리듬맞춰 > **붙여줘요** > **외쳐요**
CPR  **패드를**  **물러나라고** 
 깍지끼고 5cm 깊이로 1초에 2번/30회 AED PAD 2개를 네모 위치에 전기충격 실시전에 주변사람들을 물러나게 해요

눌러요 > **반복해요**
충격버튼  **쉬지말고** 
 맥박과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Product
Centered
Communication
Centered
Culture-
Centered



Key Solution 02

Have fun, have it easy And get familiarized

- 교육내용은 모든 대상자들의 인지수준에 맞추어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
- 재미있는 요소가 가미된 교육내용, 교육과정으로 수료자들이 교육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제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이 가능하여 실제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Have fun, have it easy, and get familiarized_ Idea.01

Easy and catchy words



Have fun, have it easy, and get familiarized_Idea.02

Fun, interactive education

Product
Centered
Communication
Centered
Culture-
Centered



Have fun, have it easy, and get familiarized_Idea.03

Immediate feedback

Product
Centered

Communication
Centered

Culture-
Centered



Key Finding 03

Use it, and remind yourself and people around you

- 수료자가 교육 후 일상생활에서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상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료자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교육을 주위사람들에게 쉽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료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며 주위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Use it, and remind yourself_Idea.01

Daily reminder

Product
Centered
Communication
Centered
Culture-
Centered



CPR TRAINING

체크해요 > 전화해요 > 가져와요
의식을 > 119 > AED
숨을 쉬는지, 심장이 뛰는지 > 위치를 알려서 응급처가 오도록 > 주변사람에게 부탁을

리듬 맞춰 > 붙여줘요 > 외치세요
CPR > 패드를 > 외치세요
박자표고 5cm 길이로 > AED PAD 2개를 > 외치세요
1초에 2번/30회 > 네모 위치에

비밀

Use it, and remind yourself_Idea.02

Spontaneous & casual education

Product
Centered
Communication
Centered
Culture-
Centered



Key Finding 04

Use it when you need it.

- 수료자가 실제 심정지 발생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Use it when you need it_Idea.01

Real-life situation tool

Product
Centered
Communication
Centered
Culture-
Centered



HOW WE TESTED?

프로토타입 테스트



시범사업



심폐소생술 교육 Kit를 체험한 국민들의 목소리

2013년 6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심폐소생술 교육 Kit 설문” 을 통해 직접 들은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Kit 설문: 총 132명 (남 69명, 여 63명) / 10대_13명, 20~30대_74명, 40~50대_45명



“국민들에게 보급이 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면 호응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47세 직장인 강OO 씨

“굿 아이디어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것 같아요.”

34세 직장인 이OO 씨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라 흥미로울 것 같아요.”

39세 주부 박OO씨

“실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28세 직장인 안OO씨



“가족들과 피크닉 갈 때 사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2세 주부 김OO씨

“(심폐소생술 교육 Kit 으로 교육 받는 게) 재미
있었어요.”

18세 김OO양



심폐소생술 교육 Kit를 체험한 국민들의 목소리

독창성

Q. 새로운 교육 Kit 로 재미있게 교육을 받고 싶어졌다.



89.1% 10.9%

이해도

Q. 새로운 교육 Kit 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86.7% 13.3%

기억용이성

Q. 새로운 교육 Kit 로 교육 받은 후 교육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었다.



85.6% 14.4%

생활연계도

Q. 새로운 교육 Kit 를 일상생활 또는 심정지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88.3%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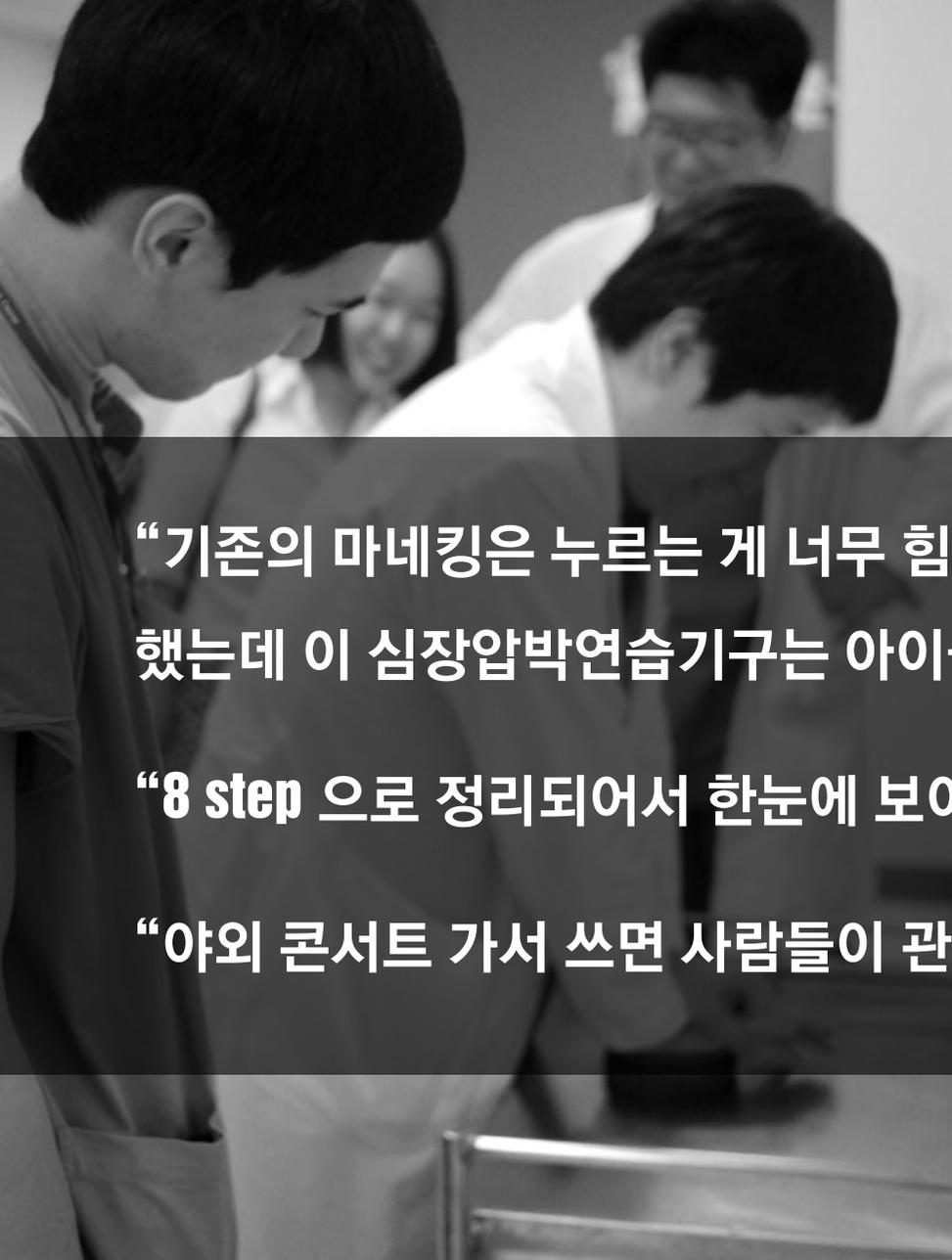
기간 및 방법: 선한사마리아인 운동본부와 소방방재청 산하의 중구소방서, 영등포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한 달간 (6/8~7/2) 1차~8차로 나누어 담당자를 선정하여 총 132명의 정규교육 수료자에게 새롭게 디자인된 심폐소생술 교육 Kit를 정규교육 후 이 Kit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설문지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HOW IT WILL BENE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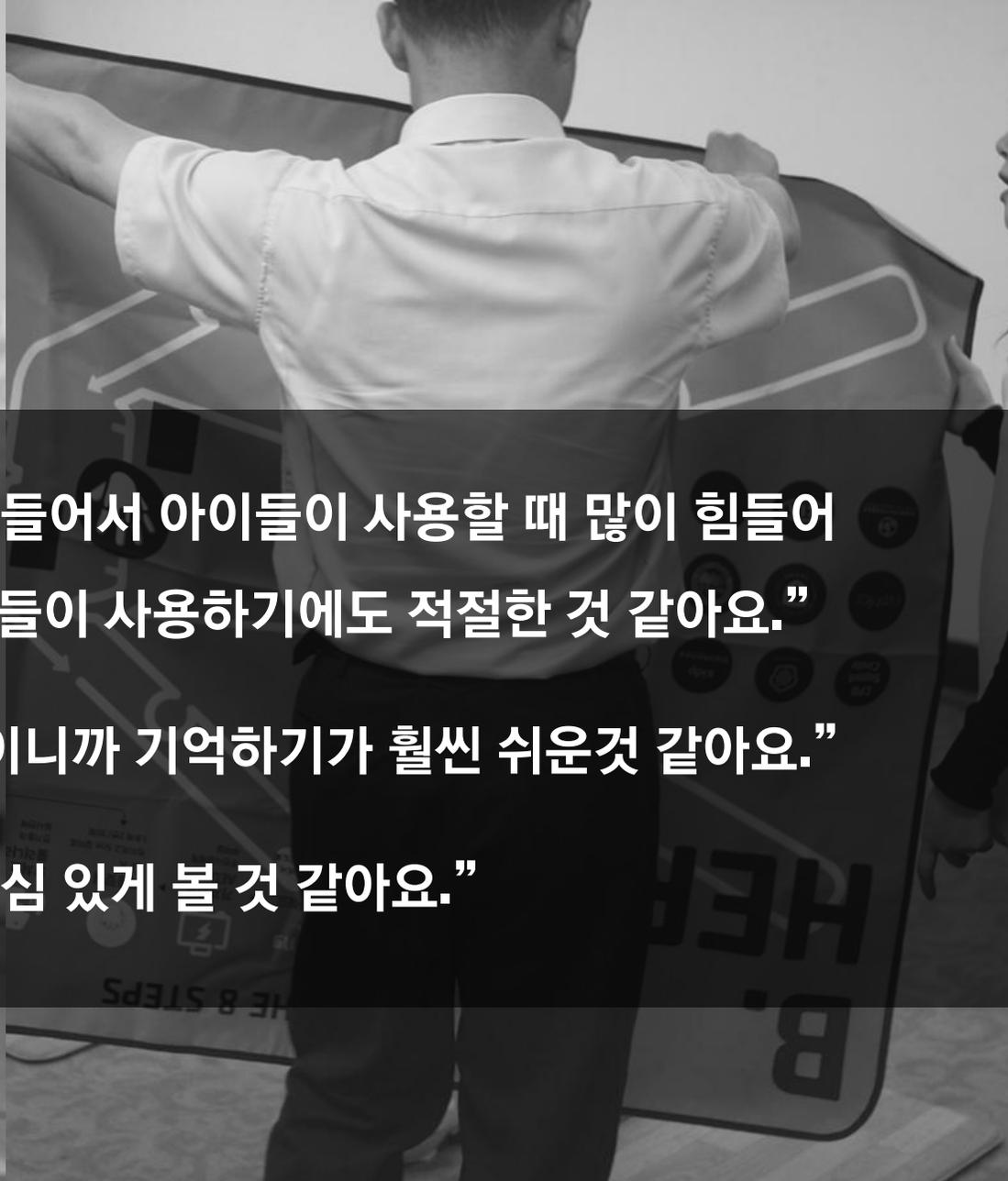
시간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육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며 CPR 의 홍보와 교육이 주위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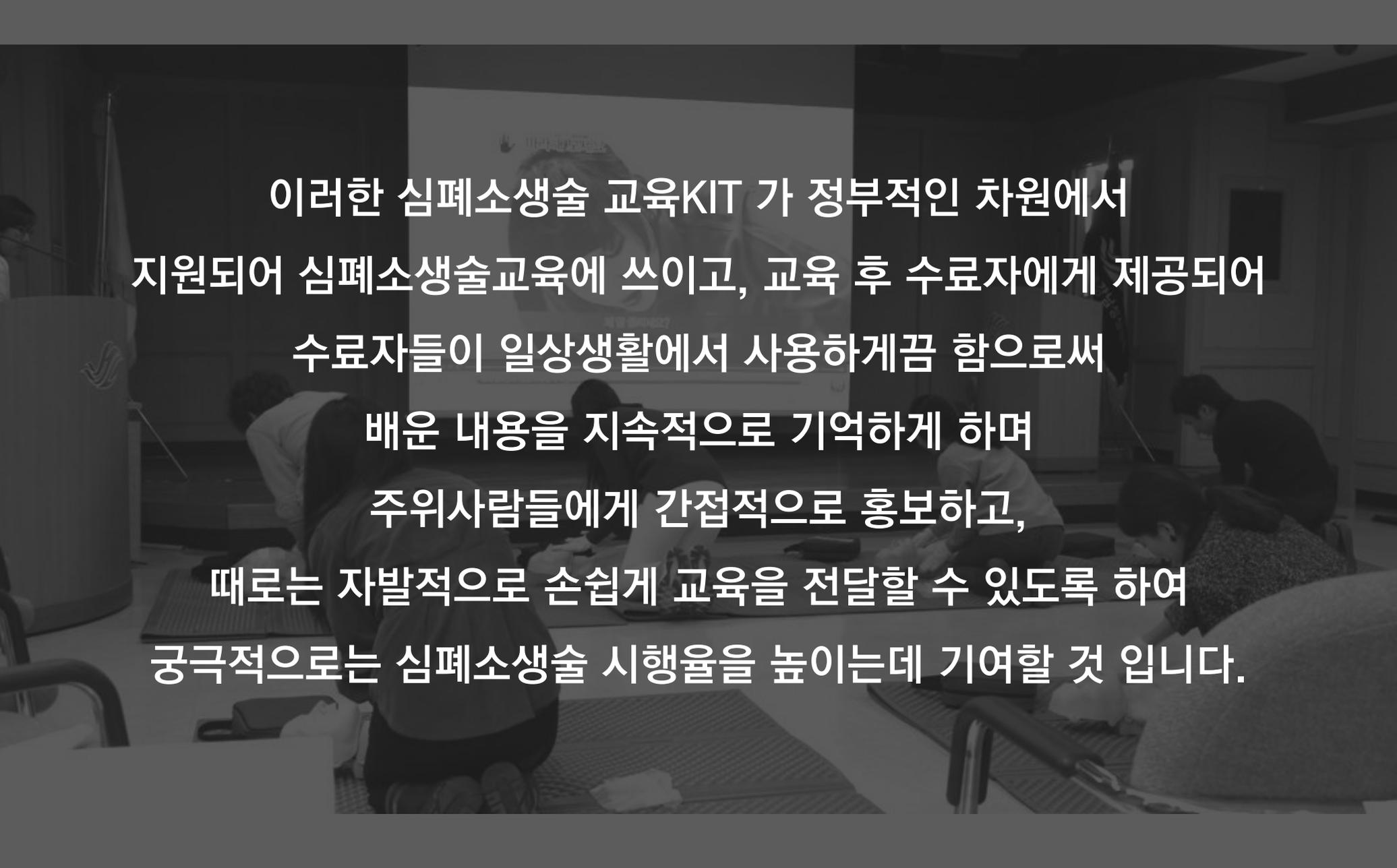


“기존의 마네킹은 누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이 사용할 때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 심장압박연습기구는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도 적절한 것 같아요.”



“8 step 으로 정리되어서 한눈에 보이니까 기억하기가 훨씬 쉬운것 같아요.”

“야외 콘서트 가서 쓰면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이러한 심폐소생술 교육KIT 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어 심폐소생술교육에 쓰이고, 교육 후 수료자에게 제공되어
수료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끔 함으로써
배운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하며
주위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손쉽게 교육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심폐소생술 시행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 입니다.



Thank you.

2nd medical service design project
정형외과외래진료실서비스디자인